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진로 여행, 마지막 시간으로

미래인재가 되는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사한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통 '소심하다' 또는 '신경질적이다
집중력이 없다, 성급하다'

또는 '몽상적이다, 제멋대로다,
산만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꼽는
가장 고민스러운

자녀 또는 학생의
고쳐야할 단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연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전제를 이렇게 잡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소개했듯이
중간쯤의 미래

그러니까 현재의 단점으로 보이는
‘소심하다’ ‘신경질적이다’와 같은

이러한 단점들이 과연
15년 뒤에도 단점일까? 라고 봤을 때

미래학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소심하다’는 단어는
현재는 드러난 단점 맞습니다.

그런데 소심한 아이들의 대부분을
잘 관찰해 보면

의외로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심하다’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신중하다’는 단어로만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신경질적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질적이다’의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예민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주 창조적이거나

또는 예술성이 강할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고쳐야 할 단점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훈련되어서
15년 뒤에 예민한 것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없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방면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고
우직하게 고집 피우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 사회에는 좀
이상한 아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눈에는

집중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성급하다' 입니다.

성급한 것도 지금 부모나 선생님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청소년들이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성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래에는 충분히
장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상적이다' 왜 너는 그렇게
맨날 쓸데없는 생각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단어 하나나 외우고

수학문제 풀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몽상적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내면의 세계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보여주는
표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제멋대로다’
뭐든 규칙을 따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참 못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산업 시대의 학교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도 엄해야겠고,
규정을 잘 지켜야겠죠.

하지만 미래로 갈수록

그런 부분은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멋대로인
아이들의 내면을 보면

뜻밖에도 매우 독립적이거나 자발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만한 것' 입니다.

산만해서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만한 아이들의 내면에는
대단히 창의적이라는

창조성이 잠재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현재의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단점인

'소심하다' '신경질적이다'
'집중력이 없다' '성급하다' '몽상적이다'

'제멋대로다' '산만하다'
이런 것들은 현재 아이들이

바로 내일 사회로 나간다고 하면
고쳐서 내보내야 하는 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5년 뒤인

중간쯤의 미래에
사회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부모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현재의 단점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전략을 짜서
아이들의 지금은 단점으로 보이는

이러한 요소들이 장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멘토 역할만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보이는 단점은 미래에

아주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리더의 기본자질로
많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꼽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미래 리더의

기본자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은

인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조건을 살펴본다면

크게 지도자상과 기업인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에는 지도자라고 하면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특출한 능력을 갖춘 한 사람이

집단이나 대중을
카리스마틱 하게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라고,
지도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미래에는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왠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왠지 저 사람 뜻에 공감한다.” 라는
마음을 대부분의 대중이 갖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미래에는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그렇게 썩 성적이나 학과 공부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유난히 많은 친구가 주변에 모이는
그러한 친구들이

아마 미래에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개성을 살려 나가겠지만
만일 비즈니스 쪽으로 진출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나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것인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긴 사람들을
현재나 과거에는

유능한 기업인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미래로 갈수록
이문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기업,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래에는
유능한 기업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에는 유기농 농산물을 유통하는

‘스프라우트’ 판매망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연봉을 얼마를 받을지,

또 이 상품은 얼마에 판매해야 할지를

전부 사장이나 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코너를 운영하는 팀에서 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했고,
우리 회사는 이만큼의 물건을 팔아서

이만큼의 매출을 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만일 이 코너에서
새로운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인사과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코너에서 협의해서
신입사원도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가 주관하는
그런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고요.

그 누구도 특별히 질병이 있거나,
이사를 간다든가 그렇지 않는 한

결코 회사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신입사원을
1만 명을 뽑아 놓으면

거의 30% 이상이 1년도 채 가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현재 뽑은 지,
또는 입사한 지 1년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하면

이런 기업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는

궁극적으로 이문보다는
사람에 더 비중을 두고

운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싶다면

선생님이나 학부모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따르려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우리 아이를 멘토해 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문보다는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런 점을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아이들은 좋아할까

이것을 따져봤을 때요.

한마디로 한다면 진보적인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단어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라는 단어를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응점에는 ‘보수’가 있겠죠.

'보수'라는 단어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청소년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 중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보라는 말이 무조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진보가 아니라

나이나 신념이나 종교나 지역 등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개방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심어주는

진로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

생각이나 마음, 행동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간디의 교훈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인재상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롭게 커다란 일들을
많이 헤쳐나간 간디 선생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7가지
사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와 국가를 어렵게 하는
7가지 사회악은

첫 번째로 원칙이 없는 정치
두 번째로는 노동이 없는 부

세 번째로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로는 인격 없는 지식

다섯 번째로는
도덕성을 상실한 비즈니스

여섯 번째로는 인간성이 없는 과학
일곱 번째로는 혁신 없는 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간디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손주인 '아룬 간디'가

할아버지의 이 7가지에다가
한 가지만 좀 추가하면

좀 더 완벽해지겠다고 생각하고
할아버지의 7가지 인재상과 관련된

문구에 여덟 번째로
'책임 없는 권리’를 추가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갑자기
미래의 인재상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간디께서
부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7가지 개념을 얘기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7가지를 보면서

그랬더니 이 7가지가 단지
100여 년 전의 사회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를 아주 어렵게 하는

어떤 키워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를
극복만 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사회는 정말 바람직한 사회로
진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 7가지 사회악을

미래 인재상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구에는 부정형
영어 단어인 'without'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without'을 'with'로만
바꿔 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규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두 번째로는 양심적으로 일하여
정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어떻게 우리는
멘토 역할을 해 줄 것인가

헌신적인 자세로 인문과 과학과 신학이

조화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자신의 권리보다는 사회를 위한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 본다면 지금까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인재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without’을
‘with’로만 바꿔 준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간디 선생이
100년 전에 얘기했던 7가지의 사회악이

미래의 인재상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양육했던

양육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선생께서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분이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 평화론'은

지금도 유럽의 화폐를 만들어낸다든가,
유럽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훌륭한
우리의 안중근 선생님이

큰일을 하게 된 데에는 단지
안중근 선생님의 능력뿐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보면 그런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그 분의 가족이나 은사님이나
그 분의 부모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안중근 선생께는 아마

훌륭하신 어머님이 계셨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안중근 선생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의사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참 무서운 말이죠?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행위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니라.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활기찬 생활을
해 보기 바란다.”

이와 같은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인재가 되는 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학자와 함께 떠나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